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2호 [투계 제2638호]

주체 110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음력 2월 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자나깨나 그리우고 뵈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전체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기쁨속에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장엄한 총진군의 보복을 힘차게 내걸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결성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걸은 빛나는 로정을 긍지높이 되새겨보는 이 시각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사무치는 그리움의 한마음을 담아 재중조선공민조직을 무어주시고 곁을곁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이신 뜻과 정으로 재중조선인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아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30년력사는 이역에 사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시고 친어버이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의 력사이며 사회주의조국에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애국애족의 자욱을 변함없이 새겨온 재중조선인들의 충성과 애국의 력사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진 자식을 더 생각하시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재중조선인들에게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공민권을 안겨주시어 민주주의적진취권리와 리익을 지켜주시었으며 1991년 3월 3일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살고있는 재중조선공민들이 하나로 뭉쳐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어나갈수 있도록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참다운 애국조직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부청사와 핵심일군들의 살림집까지 마련하여주시었으며 조선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자그마한 소행도 대견하게 여기시며 높이 평가해주시고 김일성훈장과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조국통일상과 국기훈장을 비롯한 최상급의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었습니다.

이역에 사는 저희들을 언제나 한심술로 여기시며 뜨거운 정과 믿음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없는 사랑은 오늘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그대로 이어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그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총련합회 일군들을 조국의 큰 대회들과 경축행사에 불려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오게 합니다.

더우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첫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고 새로 개정된 당규약에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진취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해주신 소식에 집하였을 때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동포애의 정이 가슴에 사무쳐와 멀리 평양하늘을 우리리며 그리움의 눈물로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세월의 언덕을 넘어 이역만리에도 즐기차게 흐르는 절세위인들의 정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기쁨 때에도 괴로움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따사롭게 비쳐드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태양의 빛발속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지난 30년간 산하에 지구협회와 지부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를 비롯한 조직들을 그쁘히 꾸려놓고 각계층의 광범한 재중조선인들을 든든히 묶어

세워 회원들모두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주체조국의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되어왔습니다.

분에 넘치게 받아안은 사랑과 은혜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저희들이 자그마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제일먼저 그 수고도 헤아려주시며 공화국 로력영웅, 애국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고 총련합회 일군들의 건강까지 세심히 넘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은정이 그대로 자랑분이 되고 죽음을 이겨내는 불사약이 되었기에 저희들은 이역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운명의 태양으로 우리러받들며 어머니조국을 위한 신념의 길, 애국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념원을 받드시어 위민헌신의 불면불휴의 로고로 우리 조국을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의 나라,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의 나라로 세계만방에 위용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오늘도 우리들은 당당한 조선공민으로 가슴을 똑 펴고 세계를 휩쓰는 약성전열병사태세에서도 조국을 만드는 길에 떨쳐 나가고있습니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우리러따르는 길에 김일성민족의 무상의 존엄과 긍지가 있고 사회주의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원한 행복과 미래가 있음을 인생의 철리로 새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30돐을 력사적출발점으로 삼고 새로운 혁신과 전진을 가져오으로써 총련합회를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공민조직으로,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애국조직으로 더욱 든든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혁명의 걸산 백두산하늘아래에 살며 활동하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 김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세세한데 정성다해 높이 모시며 전세대 공민들의 애국충성의 바통을 이어 주체적인 재중조선인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밝히주신 위대한 설계도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목표수행을 위해 총대진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보복에 발걸음을 맞추어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색있게 기여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력사적인 조중친선관계발전에서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활력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슬하의 천만자식모두를 품어안아 보살피시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은 인민의 강국으로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리며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것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필승불패의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조국통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8천만겨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10(2021)년 3월 3일 중국 심양

인민의 나라로 빛나는 조선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가 열렬히 칭송하고 있다.

스웨리에주체사상연구소 조 책임자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이 당대회에서 특별히 천명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안아올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고 강조하였다.

세네갈신문 《우리에 아프리카》는 《예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선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하늘이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총비서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령도자의 인민사랑이 있어 수많은 나라가 대륙행진열병의 확산으로 견잡을수 없는 혼란속에 빠져있는 지금 조선에서만은 강철같은 방위체제와 질서가 게

속 유지되고있으며 흑심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들에서 편이어서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꾸러지고있다.》고 피력하였다.

조선지도부의 제일가는 중대사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며 당과 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고있다고 하면서 아랍조선형로자사회는 인터넷트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인민들이 생활상어려움을 겪는것이 레사사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애로와 난관이 아무리 겹쌓여도 국가가 인민을 보살피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한적이 없다.

엄혹한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조선당과 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울려나오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

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는 말의 뜻을 다시금 음미해보게 한다.

민주평고공산당 총비서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것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상과 지향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시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모든 시책을 실시해나가기로 하신다.

그이께서는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위험천만한 최전선시찰길에도 오르고 건설장의 험한 길도 걸고계신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함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본시기자

조국소식

농업연구원 비연구소 온천연구분소 준공

농업연구원 비연구소 온천연구분소가 새로 건설되어 준공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과학농사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포시에서는 온천연구분소를 농업과학연구기지답게 훌륭히 일떠세울 목표물에 설계와 시공지도를 짜고들었다.

설시위원회의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와 건설력량이 조직되고 과학연구 및 사무청사와 후생건물 등의 기초공사와 내외부공사가 힘있게 진척되었다.

남포시농촌경리위원회와 농업연구원의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지원하여 생물공학실험실, 전자도서실, 분석실을 비롯한 연구실들과 생활구역의 설비, 비품들을 원만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간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사업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온천군안의 너명원들도 건설을 물심방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농업연구원 비연구소 온천

연구분소가 현대적으로 일떠세움으로써 서해안의 간석지 농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종자문제해결의 든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온천연구분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과학연구에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시기자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오랜 기간 길어지는 고민속에 예뻐 태웠다는 남조선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린것이다.

우리 당중상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3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동해의 히스터리적인 전쟁연습광기를 넘두에 둔것이며 북남관계의 마지막기회로 될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당국자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이번 연습의 성격

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며 실기동이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모의방식의 지휘소훈련이라고 광고해대면서 우리의 《유연한 판단》과 《리해》를 바라고있는것 같은데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 아닐수 없다.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잘 감히 완전히 상실한 때매가 되어버린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론한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것이 뒤끝방에서 몰래 진행되는 약성전열병때문에 불꽃없이 연습규모가 줄어들어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어떻게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때문이다.

미친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데 과 다름없는 껌변에 놀아날 상대가 아님을 아직까지 그렇게도 모를가.

털어놓고말하여 정치난, 경제난, 대륙행진열병난에 허덕이는 형편에 하나하나한 전쟁연습놀음에 매여달리면서까지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에 부두부득 명운을 거는 남조선당국의 처지가 가련하기 그지없다.

우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과 불신으로부터 출발한 피해망상이 극도에 달한 모양이다.

연습중단을 약속하고도 우리의 눈을 피해가며 2018년에는 110여차, 2019년에는 190여차, 2020년에는 170여차의 크고작은 전쟁연습을 도적교양이처럼 벌려놓는데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고있은지 오래며 때가 되면 날일이 계산하려고 하였다.

앞뒤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열을 올리다가는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는것

을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루차 강조하였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충분한 기회도 주었다.

그럼에도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

3월의 봄계절에 모두가 기대하는 따뜻한 훈풍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을 몰아오려고 작정했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섬》을 넘어서는 열박진 선택을 하였다것을 느껴야 한다.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알아알부할것이 없다는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

대로 량립될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지못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강그리 파괴하고있는 현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리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광지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

이러한 중대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수뇌부에 보고드린 상태에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것이며 감히 더더욱도 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세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있다.

행동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르는 법

이다.

명백한것은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입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8차대회에서 명백히 천명된바와 같이 대가는 노력한것만큼, 지불한것만큼 받게 되어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배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전잠을 자고싶은것이 소원이려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앞으로 상선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것처럼 바라는 3년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주체110(2021)년 3월 15일

평양

자 기 의 것 을 사 랑 하 라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위대한 령정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불변의 사상감정으로 더욱 승화되어 힘차게 맥동되고있다.

은 나라에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자기의것, 우리의것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값진 재부, 훌륭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내어 부흥의 패일을 마중나가려는 철석의 의지와 열렬한 창조정신이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예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 긍지가 없으면 자연히 남의것을 쳐다보게 되며 남의것을 좋아하면 사대와 굴종밖에 나올것이 없다.

남의것을 넘겨다보며 남의식을 따르는 민족이 가담게 되는 종착점은 치욕과 망국뿐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없다면 모진 고난과 시련이 증첩되는 오늘날의 엄혹한 현실을 이겨낼수 없으며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와 혁신에 전념할 때 비장한 약진과 더 큰 승리가 있게 된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이자. 이것이 공화국인민들모두의 가슴속에 고매치는 강렬한 열망이며 누구도 허물수 없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역센 배양이다.

공화국에는 인민들의 생활 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말들이 참으로 많다.

《매봉산》, 《민들레》, 《소나무》, 《은하수》, 《봄향기》, 《나래》...

블러보면 지도 모르게 가슴이 후두위지는 이 제품들은 바로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명실공히 자기의것이다.

그 누가 상상할수 있었으랴.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엄혹한 난국들이 공화국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해온 이 나날들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 인민이 역대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이 땅에서 후추속처럼 생겨나게 될것을.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어나가는 기쁨이 은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고 력사의 시련을 앞장서 헤치며 공화국인민들을 힘있게 령도하여주시는 철세의 애국자는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어디를 가시여도 누구를 만나시여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먼저 기뻐하시며 만복하시며 긍지스러워하시는것이 바로 자기의것, 우리의것을 만들어냈을 때였다.

언제인가 류원신발공장에

서 생산하고있는 운동신발들의 가치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있으며 질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신발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시어는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습용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가진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그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제103(2014)년 8월 평양말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의 제품본질에 틀리신 아동양말전시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외국문화에서 나오는 동물을 형상한 아동양말을 보시고는 우리 나라 문화영화 《령리나리》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무늬들을 새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너구리와 양아들, 곰같은 새 친구를 형상한 무늬를 새기면 될것이라고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그날의 가르침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 힘과 지혜를 다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이런 애국애족의 마음과 열정이 풀어오를 때 공화국은 더욱 부강해질수 있다는 절절한 깨우침이였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의 불길을 지펴주시며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뜨겁고도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걸간 인민들은 자기의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해 온갖을 강고히 버텨가고있으며 공화국의 곳곳에서는 자기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첨단제품들을 만들어내려는 거센 열풍이 불고있다.

자기의것을 사랑하라. 이 뜻깊은 말씀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애족의 신조와 철세의 위인을 모시고사는 인민의 드높은 자긍심,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강국을 향해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이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자기의것으로 당당히 불리울수 있는것은 결코 쉽게 창조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이는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참다운 부강이 있다는 진리를 실험으로 새겨안은 공화국인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갱생대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걸고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가는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자기의것으로 부강하는 나라야말로 참다운 강국이다.

최세의 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따라 공화국인민들은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자기의 힘으로 이 땅에 부국강병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놓을것이다.

정 수 진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자기의것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겁고도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걸간 인민들은 자기의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해 온갖을 강고히 버텨가고있으며 공화국의 곳곳에서는 자기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첨단제품들을 만들어내려는 거센 열풍이 불고있다.

자기의것을 사랑하라. 이 뜻깊은 말씀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애족의 신조와 철세의 위인을 모시고사는 인민의 드높은 자긍심,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강국을 향해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이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자기의것으로 당당히 불리울수 있는것은 결코 쉽게 창조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이는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참다운 부강이 있다는 진리를 실험으로 새겨안은 공화국인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갱생대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걸고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가는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자기의것으로 부강하는 나라야말로 참다운 강국이다.

최세의 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따라 공화국인민들은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자기의 힘으로 이 땅에 부국강병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놓을것이다.

정 수 진



미래 과학자거리



자재의 힘으로 만든 지하철동차



평양가방공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들 중 승습에서 책임비서들은 시, 군의 안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시, 군의 안주인! 얼마나 뜻이 깊은 말씀인가.

안주인이라고 하면 집안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하는 가정주부를 이르는 말이다.

한가정을 알뜰살뜰 돌보는 안주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노래에도 있듯이 살피주는 눈길은 남편과 자식의 외모와 감성세계에 이르러까지 떠날새 없고 젖어있는 손길은 가정의 구석구석을 가꾸며 마를새가 없다.

이처럼 가정을 화목하고 윤택하게 꾸려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는 가정주부, 안주인이다.

공화국에서 시와 군은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치는 강력한 보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 군당책임비서들이 시, 군의 안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이 지역적거점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꾸리고 집안살림을 간직해 해나가는 어머니나 안해의 심정으로 군민의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인민들로부터 어머니로 불리우는 조선로동당, 시와 군에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다름아닌 조선로동당이 과격한 전권대표인 책임비서들인것이다.

어머니가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을 닮지 않고 한몸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듯이, 안해가 한가정의 주부로서 살림살이를 간직해 해나가듯이 책임비서들이 자기 시, 군의 어머니, 안주인이 되어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상상시킬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나에게서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환경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위원헌신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은 나라 가정의 천어머비가 되시어 사회주의건설을 전하 제일락원으로 꾸러나갈 응대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환경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위원헌신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은 나라 가정의 천어머비가 되시어 사회주의건설을 전하 제일락원으로 꾸러나갈 응대

송고한 위원헌신의 낮과 밤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의 령도자,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기에 이번엔 진행된 강습회에서도 군당위원회

는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가고 속이야기를 타놓을수 있는 친정집,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위원들의 생활상고충을 해결하는 사업을 최우선시하며 한사람을 만나도 친부모,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그들의 눈빛과 표정, 평범한 말에서도 속마음을 읽고 대책을 세울 줄 아는 참다운 당일군이 될데 대하여 그리도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섬기는 길에서 인민들이 실지 인정하는 진짜배기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열렬한 호소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부, 위원헌신의 정신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좋아하는가고 거들 물어보시고 나서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오늘날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준다.

그이의 손길아래 이 땅에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위하여!》라는 열사복부의 정신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다.

송고한 위원헌신의 낮과 밤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인민의 령도자,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기에 이번엔 진행된 강습회에서도 군당위원회

는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가고 속이야기를 타놓을수 있는 친정집,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위원들의 생활상고충을 해결하는 사업을 최우선시하며 한사람을 만나도 친부모,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그들의 눈빛과 표정, 평범한 말에서도 속마음을 읽고 대책을 세울 줄 아는 참다운 당일군이 될데 대하여 그리도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섬기는 길에서 인민들이 실지 인정하는 진짜배기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열렬한 호소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부, 위원헌신의 정신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위 민 헌 신 의 길 에 서

이 불 폭 포

주제 106(2017)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던 그날은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새로 꾸려진 이불생산공장을 돌아보시었다.

공장에서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를 비롯한 각종 침구류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불의 색깔, 무늬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운뿐만 아니라 이불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다고 하시며

장에 가서는 가방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바람 한점 스며들세라

주제 101(2012)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완공을 앞둔 창건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동에 건설된 초고층 아파트의 맨 윗층인 45층에 까지 오르시어 살림집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때였다.

모소 집주인이 더 심정으로 살림방의 방바닥도 일일이 짚어보시고 부엌에

장에 가서는 가방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들어서시어는 행복찬 주부의 모습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배란다에 나서시었다.

대동강을 따라 한쪽의 그림자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확 안겨왔다. 동행한 일군들도 눈앞에 펼쳐진 장쾌한 모습에 한껏 심취되어 한동안 그곳

을 떠날줄 몰랐다. 그러한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바람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도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강구하였다.

정말 창문가에서 바람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창가에 서 울리는 바람소리를 가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일군들을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 호동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깔랄데 대하여 거듭 거듭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강 국 한 양 부

원수님이시다.

돌아보면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의 큰집인 은 나라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체 인민을 한식솔로 품어안으시고 천어머비의 사랑을 부어주시었다.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인민들이 찾아오는 친정집으로 되게 하라, 인민의 참된 총애가 되라, 인민을 위한것인데 무엇이 아까울것이 있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 ...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항상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고 그의 혁명령도의 최고 원칙, 최상의 목표이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한 설계도를 린이어 펼쳐주시고 삼복의 무더위와 장마비, 한겨울의 짙은 추위속에서도 수많은 단위를 열고 험한 건설현장을 찾고찾으시며 이 땅우에 가슴뜨거운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수없이 능수능하시었다.

인민이 당한 불행은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큰물과 태풍피해지역에도 제일먼저 찾아가시고 친부모도 줄수 없는 정과 사랑으로 인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꽃피우기 위해 취해주시는 사랑의 조치들은 또 얼마였는가.

뜻밖에 재난을 당한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천사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피해복구한 금천강 강부리를 찾으시어는 이번엔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부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을 형상하고있으며 기사는 어려운 환경도 뚫고 승리만을 기록해가는 승려자, 개신자를 상징하고있다고 한다.

사장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이 승리를 떨치리라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대 국 인 민 의 사 랑 을 받 아

은도금공예 《쌍두마차》

은도금공예 《쌍두마차》는 주제104(2015)년 11월 로씨야 마메도브사 사장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린 선물이다.

렐레비판방송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중중시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정과 신심에 넘치신 자애로운 영상을 비유

고 매혹된 사장은 그이께 선물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금은세공기술이 발전된 이탈리아기밀품 제작소에 주문하여 은도금공예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선물은 기사가 수레를 끄는 두마리의 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형상하였다.

두마리의 말은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힘과 용감성

을 형상하고있으며 기사는 어려운 환경도 뚫고 승리만을 기록해가는 승려자, 개신자를 상징하고있다고 한다.

사장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이 승리를 떨치리라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탁 월 한 사 상 리 론 활 동 으 로

릴수 없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이다.

올해에 들어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련이어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제시된 력사적과업들만 놓고보아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오늘의 복잡다단한 정세하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송고한 리념을 더 높이기 내세우고 공화국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로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와 결론들은 은 나라 인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 류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훌륭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한 력사적이고 중요한 대회이며 이를 계기로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강자는 언제나 승리를 내다본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도전과 난관을 파고히

되고 세계를 들었다놓는 특기할 력사적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며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질수 있는것은 다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리를 내다보고 펼치신 비범하고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세계인론들도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수 있는 로숙한 정치가이다.》, 《김정은위원장이서서 비상한 결단과 파과한 협상력, 예리한 통찰력과 능란한 외교술로 현 정치정세와 내외 관계를 능숙하게 주도해나갔다.》고 평하고있다.

참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어난 사상리론활동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전횡과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은 언제나 자랑찬 기적과 승리의 력사만을 새겨가고있는것이다.

최 화 운

《합동군사연습은 동포를 겨냥한 전쟁연습이자 적대행위》

이 사진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전, 평화투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는 각계층의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속에서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 《이데일리》 등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에서 《평화의 1만보걸기》 행사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연 소식을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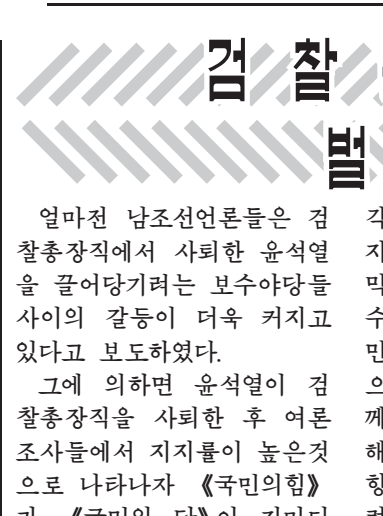
회견에서 그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동포를 겨냥한 전쟁연습이자 적대행위》, 《선제공격과 지휘부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속소조절)가 아니라(중단)만이 다시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담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번 선언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민주권

군 나가라》, 《진해미군세군전부대 추방》 등의 구호를 들고 거리를 행진한 소식, 경상남도의 100여개 단체가 도청앞에서 《한미군사훈련중단》과 《항구적평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평화화선언》을 발표하였으며 87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미국대사관앞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총대신 평화를 들자!》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소식

등을 남조선의 다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앞서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속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수십명의 정치인물들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대하여 전하였다.

사진과 자료들은 남조선각계의 반미, 반전기운이 이제 범국민적인 실천행동에 돌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여야싸움

보통선거를 얼마 앞둔 남조선에서 여야사이의 주도권경쟁탈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고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설치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사이에 조성된 의견대립을 현 《정부》의 《메이덕》(통치력마비)이라고 떠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설치문제에 대한 청와대 고위인물의 발언을 결코 《청와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사실 속도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강경파들은 이

를 밀어붙이고있다. 과거에는 생각할수 없었던것이다. 이런것이 바로 《메이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제 청와대의 말도 듣지 않는다》, 《정권의 통치력마비현상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고 하는 등 《정부》의 통치위기를 부각시키는 여론공세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니전투구》를 벌리고있는 제 집안일이나 신경을 쓰라고 반박해나섰다고 한다.

한편 다가오는 보통선거를 《정권심판론》으로 치르려는 《국민의힘》과 《정권안

정론》으로 이에 맞서려는 여당의 내용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이번 보통선거를 《첨승문심판선거》, 《정권심판선거》로 만들겠다고 고 아대면서 당국의 각종 정책실패와 부정부패행위를 적극 여론화하고있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국민의힘》이 《각종 현안을 결코 정부와 여당에 련일 평공을 이어가고있다》, 《특히 부동산문제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인데다 보통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권안

정론》으로 이에 맞서려는 여당의 내용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이번 보통선거를 《첨승문심판선거》, 《정권심판선거》로 만들겠다고 고 아대면서 당국의 각종 정책실패와 부정부패행위를 적극 여론화하고있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국민의힘》이 《각종 현안을 결코 정부와 여당에 련일 평공을 이어가고있다》, 《특히 부동산문제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인데다 보통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권안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사람들의 시체로 쌓은 시나노강언제

시나노강은 일본 혼슈의 산후에 자리잡고있는 예지고 산줄기에서 시작되어 니이가타를 거쳐 바다로 흐르는 그리 크지 않은 강이다. 이 강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일제가 1910년대말 이강상류에 동양에서 제일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것을 공개하면서부터였다.

발전소건설수는 《싱에쓰수력발전도교본점》이고 이 공사를 담당할 로동업체는 《오쿠라구미》와 《하기바야시구미》였다.

《싱에쓰수력발전기회사》는 1921년 8월에 시나노강상류에서 발전소엔제공사를 시작하였다.

엔제공사에서 제일 큰 판은 로동력이 부족한것이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부족되는 로동력을 식민지조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인부모집》을 하게 하였다.

고갈하고 약삭빠름이 그지 없는 일제는 발전소건설장에 가면 선금으로 40원을 주며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70원이상 차례질수 있다》고

거짓선전을 하였다. 이러한 거짓선전에 속아 일 시 고역을 견뎌내지만 하던 가족들을 먹여살릴수 있는 돈을 벌어가기도 고향에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판부련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시나노강상류 발전소엔제공사장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공사장에 도착하는 순간에 산산이 깨져지고말았다.

일제는 소나 말의 외간과 같은 《합바》물레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징장과 사냥개 《합바》정문을 지키는 합숙안으로 조선로동자들을 몰아넣었다.

작업시간이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식도 없이 중로동에 내몰려있었다.

로동안전대책이란 전혀 없고 환수간도 마음놓고 일할수 없는 죽음의 고역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차 실수하면 떨어져 콩크리트혼합물과 함께 매몰되어야만 하였다.

노예로동에 시달리던 조선로동자들이 병마에 걸려 자리에 눕기만 하면 채 숯기 전에 가마니에 돌돌 말

아서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곤 하였다.

또한 조선로동자들이 참을수 없는 노예로동에 시달리다 못해 죽음의 고역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탈주하면 일제야수들은 탈주자들을 체포하여다가 로동자들앞에서 쇠칼구리로 마구 찍어 반주검이 되게 한 다음 높은 곳에서 몸에 돌맹이를 묶어 내던져 처참하게 학살하였다.

한편은 조선로동자들 3명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게 행동하였다는 트집을 걸어 그들을 발가벗긴 다음 철관우에 앉혀놓고 하반신에 콩크리트타입물을 밀어넣어 움푹달라지게 못하게 하여 학살하였다.

일제야수들의 이러한 귀족같은 만행에 대하여 당시 《동아일보》는 《세명을 라체로 만들어 철관우에 앉혀 그우에 콩크리트타입물을 다져 물을 부어넣었다. 그석회와 자갈이 혼합되어 굳어 지는데 몸을 압축하여 고통을 주고 기절하여 죽게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일제는 언제를 건설하면서 그속에 산 사람을 넣어 야 언제가 든해진다고 하

면서 수많은 조선로동자들을 위도세도 모르게 콩크리트를 타입하는 언제말에 떨어뜨려 학살하였다.

가족한 학대와 고역에 시달리던 로동자들이 회사당국에 항의해나서자 일제는 집단적인 학살로 대답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을 모조리 죽여라》고 공공연히 웨치면서 조선로동자들을 칼로 찌르거나 언제우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콩크리트혼합물속에 매몰하여 죽이는 등 온갖 야수적방법으로 100여명을 처참히 학살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국일본조선선령 36년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1922년 7월 니이가타현 싱에쓰수력발전소 엔제공사장에서 조선사람들이 가족한 압제와 살인행위에 항의한다고 하여 《조선인을 모조리 죽여라》고 웨치면서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그곳에 있던 조선사람 100명을 모두 학살하였다. 이때 일 본인들은 언제에 사람을 다져넣어야 든해진다고 하면서 수많은 조선로동자들을 콩크리트타입하는 언제에 밀어넣어 죽이는 야수

본시기자 주 광 일

남조선에서는 선거철이면 《니전투구》, 말그대로 진흙탕속의 개싸움이 벌어진다.

보통선거를 앞둔 지금의 남조선정국도 다름없었다.

선거가 누가 누구를 짓밟고 권력을 차지하는가 하는 치열한 경쟁전이 기대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신경을 쓰는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발전이 아니라 저 하나의 당선이다.

후보들의 공약만 보아도 그렇다.

남조선언론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이 전한데 의하면 여야당의 후보들이 저저마다 약성전염병사태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자원지원공약들을 랍발하고있으며 일자 리해결,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 같은 공약을 련이어 발표하고있다고 한다.

정치의란투구, 결코 선거철에만 반복되는 정치현상

민심을 자기들에게로 끌어당기는것이 목적이고 그러니 민심으로부터 《인기공약》이라는 말을 듣는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편 선거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립도 날로 격화되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 《이데일리》 등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이 검찰총장의 사퇴, 《중대범죄수사청》설치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속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사건 등을 두고 현 당국을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정권》, 《국기문란정권》으로 몰아대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투기의혹을 전면조사하는 기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의 부동산문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전 보수집권시의 부동산투기의혹들과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의 부동산투기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대응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정치권의 랑투구, 결코 선거철에만 반복되는 정치현상

이 아니다.

지금 약성전염병사태로 남조선인민들은 더 큰 생활상고통을 겪고있다.

대루행전염병사태와 경제위기 기로 하여 인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있다.

하지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권력사수, 권력쟁탈을 위해 피대를 들고있다.

어디서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하나는 막느라 급급, 다른 하나는 때리느라 앞장이다.

누가 임명됐다, 사퇴했다 하면 한쪽은 변호하느라, 다른 한쪽은 트집잡느라 양양 불라이다.

그러니 정치를 한답시고 수치의 기록만 남기는 남조선사회에서 녹아나는것은 인민들 뿐이다.

오죽하면 아이들마저도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정치란 뭐냐? 멀치동생이냐?》고.

《죽지 못해 산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의 로로는 색은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잘 말해주고있다.

우 진 성

검찰총장사퇴로 신경전을 벌리고있는 보수야당들

얼마전 남조선언론들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석열을 끌어당기려는 보수야당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이 저마다 그를 끌어당기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안철수와 《국민의 당》은 윤석열사퇴가 야권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생

각한다. 그에게 많은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여있으며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제3지대에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안철수와 윤석열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 추후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공감한만큼 연대가가능성이 높다. 《철석(안철수와 윤석열)연대》가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로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고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제3지대로 성공한 례가 없다고

못박으면서 자금문제와 조직적기반 등의 이유로 윤석열이 안철수가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쪽으로 유출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하고있다.

《국민의힘》관계자들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3지대에서 기발을 들면 따라나설 사람이 거의 없을것이라느니, 어설픈게 제3지대니, 제야세력이나 허버 《단 한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모델》을 꿈꾼다면 지지율은 거품처럼 꺼질것이라느니 하면서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가볼지 못하게 하려는

오만무례한 일본에 관계개선을 구걸

요즘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관계개선때문에 물머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일본과의 과거사갈등문제와 관계개선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였다. 《일본통》으로 불러우는 사람을 주일대사로 임명한다 하면서 심나라에 추파를 던진다.

관계개선이냐 하면 서로의 부족함과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과거 일본이 우리 민족과 인류앞에 지은 엄청난 죄를 청산하고 바로 잡는것이 관계개선에서 선차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본은 어떻게 나오고있는가.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과 일본군성노예피해자배상판결 철회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남조선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를 표시하였다.

일본당국은 남조선에 대해 《듣지도 가르치지도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그 무슨 《비남조선3원칙》이라는것을 세워놓고 외교장관전화대화로

청을 거부하고 새로 부임된 주일대사를 만나주지도 않는 등 오만무례하게 놀아내고있다는것이다.

더우기 당국의 후원밑에 《다게시마의 날》이라는것을 공공연히 벌려놓고 친일 미국학자들 내세워 일본군성노예가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황당한 내용의 논문까지 발표하게 하는 등 제침 야망실현과 력사외곡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일본의 극우익분자들속에서 《이번 기회에 남조선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나온것은 관계개선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어

《비상상황, 비상한 대책》

1998년 2월 대학을 졸업한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한해전만 해도 대기업이나 금융권《사원층》을 목에 걸수 있었으며,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고용시장이 팽공 얼어붙은탓이다. 너적너적 않은 가정형편 탓에 초조했고 결국 눈높이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그 회사마저 망해버렸다. 일급을 몇달치 못 받고 버티다가 실업자가 되었다. 《... 시나노강의 수력을 리용하여 간도지방에 송전하게 될 땐 동양철도의 발전소로 되는 대공사를 ... 니이가타현에서 시작하였는데 최근 공사에 사용되고있던 신인의 시체가 하루 각지에서 발견되어 로동자학대, 치사 등의 풍문이 돌러오고있다》고 전하였다.

시나노강엔제공사장에서의 조선로동자들에게 대한 학대와 학살만행은 영연인류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인류 할 천후에 용납 못할 대범 죄이다.

감속, 휴직금지, 정리해고라는 생존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허리머를 줄라며며 겨우살이를 한다. 하지만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기에 또 다른 겨울이 다시 불어칠수 없기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게 그치지않다.

우리는 갈림길을 만들어야 한다. 《(COVID-19) 청년세대》가 《IMF청년세대》와 다른 생애를 살도록 지금 당장 전례없는 규모의 일자리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과 금융, 사회적대화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비상상황이니 비상한 대책을 내놓는것이 당연하다. 때로는 후회로 또 반복할수 없다.

《(COVID-19) 청년세대》는 우리가 알고있는 《IMF청년세대》와 닮았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때 취업절벽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COVID-19) 이후 전세계청년(18-29살)가운데 17%가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활동을 하던 청년 6명중 1명이 《(COVID-19) 실업자》가 된셈이다. 《(COVID-19)로 큰 타격을 입은 5명을 만났다. 직제는 3년, 많게는 11년 러행업에서 일해온 이들은 1년 내내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했다. 첫 《(COVID-19) 확진자가 나 온 2020년 1월 20일부터 러행에약취소전화로 몸살을 앓았고 겨우 출근(3월)과 유급휴직(5, 6월), 무급휴직(7, 8월)을 거쳐 해고(11월)수순을 밟았다. 재난상황에서 러행사가 비용

본시기자 김 정 혁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평양민족악기공장



평양시 락랑구역에 지난해에 새로 조립한 평양민족악기공장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8월 3일 민족악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멋지게 건설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정히 만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평양민족악기공장은 국내에서 제작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목재종합기계설과 철재가공설, 여러 민족악기 제작설 등이 있다. 현악기생산공정, 목관악기생산공정, 타악기생산공정이 확립되어 유티금, 어은금, 가야금, 장새남, 저대, 북, 장고를 비롯한 각종 민족악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검사공정과 포장공정도 꾸려져 있다. 오랜 기간의 숙련과 경험을 터득한 고급기능공들이 섬세한 기술로 다양한 민족악기들을 손색없이 제작하고 있다. 악기검사원들은 전문예술단체들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유명한 음악전문가들이다. 공장에는 선조들이 만든 악기유산들과 현대에 와서 개량한 악기들을 진열한 전시장이 있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민족악기들은 현대적으로 개량된 악기들이다. 악기들은 자기의 우아한 음색을 보존하면서도 그 형태와 모양, 재질을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개량함으로써 하여 음색이 종전보다 맑고 부드러우며 음량도 더 크다. **본사기자 김준경**

웃음은 사람들의 감정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기쁘거나 마음에 좋은 느낌이 생겼을 때 소리 없이 혹은 소리내어 웃는 모양이나 동작을 뜻한다.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인 웃음은 건강과 장수의 명약으로서 의학자들이 권고하는 만성질환 예방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한번 크게 웃으면 5분동안 땀을 흘린 것과 같고 10초동안 소리내어 웃으면 3분간 노기찬 운동량과 같다.》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웃으면 650개의 근육들이 가운뎃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등 웃음과 관련한 연구자료도 많다. 공화국에서 창작 공연되고 있는 다양한 화술소품들은 창조와 로동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 있는 인민들의 생활에 웃음과 랑만을 더해주고 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화술소품들을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즐겨 보며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화술배우들 가운데는 중앙예술경제선전대의 배우들도 있다. 얼마전 기자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중앙예술경제선전대를 찾았다. 작품창작과 창조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닳익은

의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새겨안았다. 아쉽게도 새 주제의 작품창작을 위해 현실에 나간 것으로 하여 만날수는 없었지만 그의 개성있는 작품이 현실속에서 또 하나 완성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수 웃음을 위한 작품을 창작해서는 안됩니다. 웃음속에 교훈이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우리는 늘 현실에 나가살아달아야 합니다. 또 유모아도 알고 상식도 알기위해 많은 책을 읽고있습니다. 우리들의 화술소품무대는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펼쳐집니다. 공장과 농장, 탄광, 발전소를 비롯하여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새 화술소품들을 완성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들끓고있는 현장들에 나가려고 합니다.》 행복넘친 우리의 생활을 랑만적으로 보여주는 의식과 기지, 해학으로 가득찬 화술소품들을 창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화술배우들이 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아이들이란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 크게 나누어 보면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운데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것은 학교이다. 아이들과 학교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 학교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교원이 가르키는 칠판을 바라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아이 한명이 책상에 앉았다고 한명을 위한 교사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나 그 아이는 분명히 보물아이기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투쟁을 받는 수재를 떠올리거나 아무튼 특수한 아이인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이다. 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그 아이는 결코 특수한 존재가 아니었다. 평범한 부모들을 둔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다. 평범한 아이가 세상이 다 아는 그 《특수한 존재》로 된것이다. 조국의 최북단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초학교 앞삼보교.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되어있고 물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배우들을 보니 우리가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하나하나의 말마디, 동작들이 그들의 피라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지금 우리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새 작품창작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최근년간 특색있는 연기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는 배우 전석철이 하는 말이였다. 그는 현재 중앙예술경제선전대 화술조 조장의 사업을 맡아보고있다. 지난 시기 텔레비전연속극 《사랑의 권리》와 독연 《세산》, 《우리 집사람》, 《레철》과 같은 화술소품들에 출연했던 그는 지금 공화국의 일심단장을 보여주는 내용의 만담을 형성하는데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다른 화술배우들도 인제중시, 재자연화중세의 촌극과 재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화술소품창조에 여념이 없었다. 사람들 누구나 이만큼 들어도 웃음집이 절로 흔들거리는 인기배우 리순홍도 중앙예술경제선전대 화술배우들중의 한사람이다. 행복의 별천지에 차넘치는 인민들의 회의를 생동하면서 인적교양적의의가 있게 반영한 그의 지난 시기



작품창작과 창조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닳익은

아이들이란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 크게 나누어 보면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운데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것은 학교이다. 아이들과 학교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 학교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교원이 가르키는 칠판을 바라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아이 한명이 책상에 앉았다고 한명을 위한 교사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나 그 아이는 분명히 보물아이기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투쟁을 받는 수재를 떠올리거나 아무튼 특수한 아이인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이다. 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그 아이는 결코 특수한 존재가 아니었다. 평범한 부모들을 둔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다. 평범한 아이가 세상이 다 아는 그 《특수한 존재》로 된것이다. 조국의 최북단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초학교 앞삼보교.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되어있고 물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분교에 대한 이야기 (1)

이곳은 인적드문 곳이었다. 섬에는 불과 4명의 동대원과 그의 가족이 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동대원의 아들이 소학교입학을 앞두고 되었다. 섬인것으로 하여 학교에서 공부할려면 집을 떠나 물에 나가 생활하여야 하였다. 개학날을 앞두고 어린이는 기분이 어쩔줄 몰라했지만 자식을 홀로 물에 가 공부시키게 된 그의 부모들에게는 걱정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그들에게 날아들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섬에 분교를 내오도록 하시었다는것이였다. 이곳 섬마을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보시러 한 일군을 파견하시었던 그이께서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어찌 섬이 물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섬마을사람들을 위하여 큰 물저장장도 만들어주고 또 가정에 천연색텔레비전과 문화오락기제도 다 갖추어주시

특별히 부유한 나라도 아닌 조국이 무엇때문에 한두명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주고 몇명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 통학버스와 열차를 보내주고 선생을 보내는지 아무리 타산해봐도 리해가 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웃을 일이지만 조국에 대한 지식이 빈곤한 나에겐 그것은 오직 경제적인 타산으로부터 달려가 산이 되지 않았던것이다. 안내원은 우리 조국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조국을 처음 찾는 사람의 안내를 맡았을 때 제일 힘들답니다.》 하고 통쉬인 어조로 웃으며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 분교가 생기게 된 력사는 오랜데 무엇부터 설명해야 선생이 리해를 빨리 할수 있을까요?》 하고 잠시 생각을 굴러다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는 곧바로 1947년, 해방을 맞이한 조국땅이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고 새 생활창조에 일떠선 인민들의 힘찬 노래소리 가운 강산을 울리던 그해 9월부터 시작되었다. **재중동무 김영란**

말린 꽃제품들

평양화초연구원 말린꽃제품소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말린꽃제품소에서는 화초의 자연미와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꽃바구니, 액플, 벽 및 문장식, 꽃병과 같은 다양한 말린꽃제품들을 만들고있다. 보통강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화초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말린꽃제품을 가지고 집안을 장식하니 좋다. 생활의 자연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말린꽃들은 보기 좋고 금시 향기를 풍기는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지며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한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이곳 제작소에서는 습기, 자외선에 의한 변색, 변형을 막고 말린꽃제품들이 생화와 같은 아름다운 색과 모양을 보다 오래동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최근년간 이곳 제작소에서는 솔잎의 원색과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즐기, 가치를 가용처리하여 조형예술성을 잘 살린 각이한 크기와 모양의 말린소나무제품들도 제작하고있다. 살림방은 물론 공공건물의 사무실과 홀, 복도를 비롯한 실내를 장식하는데 효과적이고 관상적 가치가 큰 말린소나무제품은 사람들속에서 소나무의 역센 기상을 그대로 담고있다는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사랑의 대지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기때문이었다. 불구로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지만 일자라마져 잃으면 그 캄캄한 인생마저도 끝장나기에 이토록 모질고도 힘든 결심을 내었던것이다. 의로이 수술대에 누운 그의 머리맡에는 가까운 형숙오, 친구도 아무도 없었다. ... 그후 라금혁은 집단과 동지들의 뜨거운 정에 떠날뻔했었던 마음을 고하고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온 종업원들이 그를 따듯이 품어안아주었다. 태양열설비보급사에서 그는 그에게 알맞은 일감도 맡겨주고 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일하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었다. 친부모, 친형제의 심정으로 라금혁의 배필을 고르느라 원심을 쓴 보급사일군들, 인물값고 마음씨고운 처녀가 라금혁과 일생을 함께 하기로 했을 때에는 제일처럼 기

베하며 모두가 떨쳐나 결혼식준비에 지성을 바쳤다. 라금혁의 결혼식은 보급사의 종업원식당에서 모두의 축복속에 진행되었다. 한쪽다리를 잃고 웃음을 잃었던것이 언제였던가싶게 행복해하는 라금혁. 허나 편지들의 주인공 카디나스의 운명은 얼마나 불행한것인가. 신상에 닦친 불행은 비속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너무도 판이했다. 힘든 결심 끝에 다리를 자른 카디나스였지만 끝내 직장에서 쫓겨나고말았다. 결국 다리를 자르면까지 지켜보려던 딸 리마져 떼어내고말았다. 실상가상으로 그에게 집세를 물라는 집주인의 통지가 왔다. 엄청난 수술비부담으로 집세를 물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알면서도 세방주인은 막무가내로 그를 내쫓았다. 그는 방

《세상에 혈연의 관계보다 열렬하고 공고한것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실생활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족을 이룬 우리 사회에 혈연의 관계를 초월하는 덕과 정의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그것은 바로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과 정입니다. 자본주의사회 정의를 버림받고 내던져졌을 불편한 몸인 제가 집단과 동지들의 정에 떠날뻔한 한걸음 그들을 모르고 살았습시다. 사회주의 그 품을 떠나 못합니다.》 **본사기자 홍범식**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곳

— 월향 전시관을 찾아서 —

게월향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열렬한 애국심과 의리를 지니고 포악한 적장군을 처단하는데 기여한 평양의 유명한 녀인이다. 그가 살던 풍치수려한 모란봉근처에 월향동이 있고 월향전시관이 자리잡고있다. 이곳 전시관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이곳에 들러 슬기롭고 근면한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 민족적정취가 어려있는 전시품들을 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고유한 민족회화형식의 특성을 훌륭히 갖추고 오래전부터 발전하여온 조선화화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의 선조 소나무와 국조 참매를 형상한 미술작품들, 천하절승 금강산과 묘향산, 철보산의 경치를 담은 미술작품 등을 감상하면서 쉽게 발견을 못지 못했다. 이곳 전시관에는 새로운 핑레도와 아름다운 색갈을 빗을 부리는 선진로와 밧고트, 국고트, 저가락과 술가락과 같은 누트릇제품들도 있었다. 국내최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누트릇제품들은 대대로 전해져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속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이곳 전시관에는 새로운 핑레도와 아름다운 색갈을 빗을 부리는 선진로와 밧고트, 국고트, 저가락과 술가락과 같은 누트릇제품들도 있었다.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고구려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정릉사



고구려의 시조왕릉인 동명왕릉을 돌아보고 왕릉의 앞쪽으로 나오는데 돌지게 자리잡고있는 정릉사가 한눈에 안겨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정릉사터의 규모는 남북으로 132.8m, 동서로는 223m로서 그 총면적은 약 3만㎡에 달한다고 한다.

의 사찰인 정릉사안에 들어서니 마당 한가운데 탑이 서있었다. 리일신연구사는 그 탑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건물은 중금당, 동쪽에 위치한 건물은 동금당이며 서쪽에는 서금당이 놓여있다고 하면서 탑의 남쪽에 사찰로 들어가는 중문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전문가들은 주산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어린이들의 오른쪽에 특이한 속셈능력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국의 평양교원대학과 여러 교육기관에서 현대교육 발전추세에 맞게 여러가지 주산놀이를 통한 어린이지능 개발방법과 어린이로보트과 의교육방법들을 창조하여 성

주에 맞추어 가무를 하면서 글짓기까지 하고 동시에 1초간격으로 현시되는 세자리수, 네자리수들의 산수계산을 눈감찰할 사이에 하였다.

주산교육에 힘을 넣는다

4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주산교육을 받게 되면 판과 함께 주산알의 오르내림을 영상화하는 능력이 형성되게 된다.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에서는 주산교육에 기초하여 유치원교육 단계에서 과학, 예술, 컴퓨터, 로보트, 외국어교육을 줄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우기 외국어로 자기가 지어 쓰는 글을 류창하게 설명하면서 제시되는 두자리수의 산수계산과 3화음에 대한 청음까지 하고 있다.

상식

우리 민족의 장담그기풍습

우리 선조들은 매해 음력 2월이면 어느 집에서나 장을 담그었다. 된장은 동맥경화와 노화를 막으며 방사선피해 막기와 암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원장은 감칠맛이 나는 부식물의 하나로서 음식물의 잡냄새와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는 특이한 작용을 하며 남색국이나 콩고추, 감자, 호박죽에 넣으면 구수한 맛을 들인다.



봄철에는 우선 간보호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봄은 간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지만 이시기에 간과 관련한 질병도 많이 발생한다.

원장은 감칠맛이 나는 부식물의 하나로서 음식물의 잡냄새와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는 특이한 작용을 하며 남색국이나 콩고추, 감자, 호박죽에 넣으면 구수한 맛을 들인다.

사화

고려청자에 깃든 이야기 (4)

왕공탁의 아버지는 성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뉘, 가마칸을 고쳤다구? 제까짓게 뭘 안다구 함부로 가마에 손을 대는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뭘 하기도 하였는데 고유한 맛과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온 건강식품이다.

원장은 감칠맛이 나는 부식물의 하나로서 음식물의 잡냄새와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는 특이한 작용을 하며 남색국이나 콩고추, 감자, 호박죽에 넣으면 구수한 맛을 들인다.

속담과 뜻

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농사에서 제일 귀중한 봄날에 하루 게으름을 부리면 그만큼 농사가 안되어 열흘을 굶는다는 뜻으로 농사에서 봄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머리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진 8각7층돌탑을 돌아보니 갖가지 세부구조로 하여 정교한 돌공예품을 연상시켜 절로 탄사가 나왔다.

발굴정리되었다고 한다. 정릉사라는 이름도 발굴당시에 드러난 기와장물에 《정》 또는 《릉사》라는 글자들이 찍여져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는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밖에서는 합각식 2층전물로 보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보니 내부가 통간으로 되어있는 보광전(중금당)이며 배집지붕의 단층전물로 된 동화전(동금당)과 극락전(서금당)도 저마끔 특색이 있었다.

그후 정릉사는 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동명왕릉이 개건될 때 함께 복원되였다. 정릉사터에 동명왕릉과 정릉사터에서 발굴한 유물들 그리고 고구려력사를 개발하여 전시한 유물전시관이 꾸려져있었는데 거기서 고구려에서의 요업기술, 공예술의 발전모습과 생활관습, 사찰제도 등을 엿볼수 있었다.

리일신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정릉사는 고구려이후시기에 폐사로 되었던것인데 해방후 공화국정부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따라 정형하게

선조들의 건축유산연구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있는 정릉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구려시기의 높은 건축술과 문화전통을 다시금 가슴부듯이 되새겨보았다.



몽림큰곰

족제비, 청서, 오소리 등 많은 동물이 살고 있다. 또한 몸질량이 500~700kg정도 되는 큰곰이 있다.

몽림큰곰은 자강도 몽림군과 랑림군일대에 살고 있다. 수렵이 유행하고 먹이원천이 풍부한 이 일대는 공화국에서 큰곰분포의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이다.



에 국가가 올리고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격정에 넘쳐 울고있는 체육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사람들은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제60차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그는 다음해 중국에서 진행된 제11차 아시아력기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고 보도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96년 4월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70kg급경기에서 그가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다.

그런 체육인들가운데는 세계적 합장수로 불리는 2중 세계력기선수권보유자 김명남도 있다.

제61차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유럽선수들만이 패권을 쥐고있던 67.5kg급경기에서 제1위를 하여 세계선수권보유자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오늘도 사람들은 세계적인 힘장수 김명남이란 이름을 떠올리며 감회깊이 추억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본사기자

에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악기

령고와 뒤편, 로고는 모두 여러개의 북편을 묶어놓은것이 특징이다. 령고는 고리를 중심으로 8개의 북편을 붙여 만들었고 뒤편은 한쪽북편만 있는 6개의 북편을 묶어서 매달아놓았다.



로고는 그보다 큰 2개의 긴 북을 가로 덧놓아 매달아놓았다. 이 악기들은 모두 북을 매다는 틀에 장식을 하였다.

